

전 세계 난민 1억1천명 육박... 지난해 美 2만5천명 정착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CP)가 난민과 실향민들의 곤경을 돕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의 노력을 조명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박해, 분쟁, 폭력, 인권 침해 및 공공질서 훼손 사건 등으로 인해 난민 수가 급증했다.

2021년 말에 전 세계 난민 인구는 8930만 명이었으며, 2022년 중반에 1억3백만 명, 2022년 말에는 1억840만 명에 이르렀다. 이는 2011년 3854만 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수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교적 박해, 인권 침해, 원주민 및 아프리카계 공동체에 대한 폭력 증가, 자연재해 등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국 북침주의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ELC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연간 난민 수용 상한선을 12만5천 명으로 설정했지만, 실제로 재정착에 성공한 난민은 2만5천465명에 불과했다.

주류 개신교 교단 중 하나인 ELCA는 난



2021년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한 상업용 항공기에 피난민들이 타고 있다. ©CBS 뉴스 유튜브 캡처

민 재정착에 있어 미국의 세계 지도자 역할을 강조하며, 난민 수용 인원을 증가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최대의 종교 기반 난민 지원 단체인 '루터교 국제 이민 및 난민 지원기구'(Lutheran Immigration and Refugee Service, LIRS)는 1939년부터 50만 명 이상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환영해왔다.

세계적인 기독교 인도주의 구호 단체인 '월드 릴리프'(World Relief)는 난민 정착을

주도하는 기관 중 하나이다. 이 단체는 미국에서 난민 정착을 돕기 위해 국무부에 승인을 받았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 난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전미북침주의협회 이민위원회(Evangelical Immigration Table)는 최근 워싱턴주 켈트에 위치한 갈보리채플사우스(Calvary Chapel South) 교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 교회는 새로 정착한 난민과 이민자들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취

업을 돕고 있다.

홀리 앤드루스는 워싱턴주 페더럴웨이 에 위치한 브룩레이크 교회(Brooklake Church)에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했으며, 두 교회는 지금까지 25명 이상에게 취업 훈련을 제공해왔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ELCA와 LIRS는 회원들을 초대하여 연방 신출직 공직자들과 소통하며, 국내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도와 실천을 통한 지원을 당부했다.

미국 라디오 방송국 WMRA에 따르면, 처치월드서비스(Church World Service, CWS)는 20일 버지니아주의 해리슨버그 시내에서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했다.

UNHCR에 따르면 이번 달 기준으로 약 3530만 명의 난민, 6250만 명의 국내 실향민, 그리고 540만 명의 망명 신청자가 있다. 유엔 난민기구는 국적이 없어 기본권에 접근할 수 없는 무국적자들로 인해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난민과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개인의 70%는 그들의 출신 국가와 인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시리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은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난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김유진 기자

“챗GPT가 설교를?” 독일 루터교회 예배 논란

지난 10일 독일의 한 루터교회에서 인공 지능 챗GPT(ChatGPT)가 설교를 맡은 실험적인 예배를 드려 논란이 일고 있다.

CBN뉴스에 의하면, 이날 챗GPT 챗봇(Chatbot)은 독일의 바이에른의 뤼어스에 위치한 루터교회인 성바오로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자”고 했다.

챗GPT 챗봇은 대형 화면에 수업을 기른 흑인 아바타의 모습으로 등장했으며, 무표정에 단조로운 목소리로 “친애하는 여러분, 올해 독일에서 열린 개신교 집회에서 인공지능으로는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챗봇은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의 도전에 집중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절대 잃지 말

라”는 내용을 전했다.

챗봇은 때로 진부한 말을 하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신앙을 지키려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교회에 가야 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전체 예배는 화면에 있는 4명의 다른 아바타, 2명의 젊은 여성 및 2명의 젊은 남성이 주도했다.

일부 청중은 연사들의 AI 아바타가 빠르고 단조롭게 말하자 “마음도 없고 영혼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독일 서부 쾰른 근처 트로이스도르프 출신 마르크 잔센(Marc Jansen) 루터교 목사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것이 실제로는 더 나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너무 잘 작동해서 놀랐다. 또 AI의 언어는 고르지 않은 면도 있었

지만, 대체로 잘 작동했다”며 “그것이 놓친 것은 어떤 감정이나 영성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는 설교를 작성할 때 필수적”이라고 했다.

설교, 기도, 찬송가를 포함한 40분간의 챗GPT 예배를 구상한 비엔나대학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요나스 짐머라인(Jonas Simmerlein·29)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종교 지도자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오히려 AI의 사용으로 교인들의 일상적인 업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일리노이주 풀턴에 위치한 제일개혁교회의 척 허커비 목사는 트위터에 “AI 설교’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신앙을 지키려면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야 한다’는 권고였다. 예상대로 그것이 율법을 전할 수



©KTLA 영상 캡처

는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설교란 정의상 사람의 영혼에 전하는 메시지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전달할 수 없다. AI가 만든 설교는 정의상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 외에 “챗GPT로 전달된 설교, AI는 이제 종교 지도자다. 적그리스도/짐승 시스템을 폭로하는 것 같다”는 비판도 있었다.

강해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터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리밍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가주 68% “학교, 부모에 학생 성 정체성 변화 알려야”

미국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약 3분의 2는 자녀가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별로 인식되는 경우를 포함해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정서적 건강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학교가 부모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법률(부모통지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스무센리포트(Rasmussen Reports)는 12일 펄스오피니언리서치(Pulse Opinion Research)가 1,305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의 오차범위는 ±3%p이며, 캘리포니아 갈보리채플치노힐스(Calvary Chapel Chino Hills)의 리얼임팩트미니스트리(Real Impact Ministry)가 후원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4%는 “학교가 자녀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 또는 학업 성취도의 주요 변화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LGBT 운동을 나타내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다.

혔다. 특히 66%는 그 같은 법을 강력히 지지했고, 12%만이 반대했다.

“부모통지법에 자녀가 다른 성별로 식별됨을 학교에서 부모에게 알리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62%는 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고, 6%는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더 높았다. 27%는 지지할 가능성이 낮았다.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69%는 “자녀가 다른 성별로 확인되거나 확인을 요청할 경우 학교에서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55%는 이러한 유형의 상황에서 부모 통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23%는 반대한다고 했다.

응답자의 약 68%는 “교사와 학교 행정가

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비밀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으며, 55%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24%는 지지한다고 말했다.

백인 응답자의 경우 약 절반(51%)이 “자녀가 다른 성별로 식별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에서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흑인 및 히스패닉 유권자의 경우 57%가 그 같이 답했다.

리얼임팩트의 지나 글리슨(Gina Gleason) 이사는 성명에서 “이 데이터는 캘리포니아의 학부모가 투명성과 책임 있는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따라서 자녀가 이러한 문제나 생활 방식 변화에 직면한 경우, 학교 행정 당국이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화됐다”고 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교육 기관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자녀와 자녀의 복지, 양육이 학교나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임을 보여주기 위해 학교 이사회 회의에 무리 지어 참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학원목회 연구회 컨퍼런스 개최



2023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학원목회 연구회 컨퍼런스 2023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학원목회 연구회 콘퍼런스

미국장로교청년연합수련회 주력 사업으로... 한인교회 유기적 협력 강조

미국 유학생 및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 선교에 헌신해 온 학원도시 목회자들을 위한 2023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학원목회자 컨퍼런스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됐다. 이 모임을 통해 한 자리에 모인 학원도시 목회자들은 선교현장의 생생한 간증들을 나누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방안들을 나누며 협의했다.

미국장로교(PCUSA)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학원목회 연구회(회장 함중현 목사, 삼페인-어바나한인교회)에서 주최한 이번 학원목회 컨퍼런스는 위싱턴주에 소재한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캠퍼스 타운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살아

있는 미래인 청년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며 청년 선교의 해답을 찾는 기회를 가졌다.

개회예배는 정순재 목사(조지아, 에덴스 한인장로교회)가 ‘괴로움 VS 행복’을 주제로 등단하여 “목회현장 가운데 괴로움과 행복을 함께 경험하지만, 사역지를 행복한 현장으로 만들어 가자”고 도전했다.

주강사로 나선 한태진 목사(캘리포니아, 대성장로교회)는 “21세기를 관통하는 Narrative impact”를 주제로 3번의 주제강의를 진행했다. 한태진 목사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교회를 위해 목회할까 하는 각오로 매주 설교 준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야기식 설교를 통해 온 성도와 목회자가 다음 주일이 기다려질 만큼, 말씀 가운데 진주를 발견하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학원목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특강을 위해 등단한 권준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는 형제 교회에 부임하여 어떤 목회를 진행해 왔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권 목사는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운데 성도들과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예배를 통한 변화에 집중해 왔다. 세상을 향한 열린 선교공동체가 되어 제자삼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특강은 박성주 목사(PCUSA 투자용자국)의 ‘PCUSA 투자용자국 소개’, 하모세 목사(캘리포니아, 고백하는 교회)의 ‘전도서에서 본 자연과 은총’, 김성완 목사(위싱턴주, 시애틀 형제교회)의 ‘고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순으로 진행됐다.

폐회예배를 위해 등단한 정에스터 목사(뉴저지, 움직이는교회)는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본문으로 “함께하심”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집회장과 숙박 식사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지같은 학원목회 현장 가운데 함께하시고, 힘주시기를 소망한다”고 인사말씀을 전했다.

이와 함께, 노재왕 목사(학원목회연구회 전국청년수련회 준비위원장)은 “오는 11월 추수감사절 기간에 학원목회연구회의 주력 사업인 제 6회 미국장로교 연합 청년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한인교회들의 유기적인 협력 가운데, 더욱 풍성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토마스맹 기자

종이접기 전시 통해 나는 기쁨과 영감, 시니어센터서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 종이접기반 전시회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정문섭, 이하 시니어센터) 종이접기반 전시회가 16일(금)부터 29일(목)까지 2 주간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 주제는 ‘희망의 나눔’으로 총 182 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주최 측은 “어르신들이 종이접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작품을 통해 사람들과 기쁨과 영감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모두 모아 29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 3개월 동안 만들어 낸 아름다운 작품들이다”라고 소개했다.

종이접기반을 지도하고 있는 권은경 교수는 “노인들의 꿈과 희망을 담아 종이를 접으며 작품으로 나타낼 때 아이처럼 기뻐하신다.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정문섭 이사장은 “종이접기는 본인 만족도는 물론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클래스”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열리고 있으며 문의는 213-387-7733으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제3차

살렘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 (정신적 리더십 프로그램)

- ♥ 대상 : 현재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 및 목회자 사모
- ♥ 날짜 : 토 8/19/23 8:30a.m. -5:30p.m.
일 8/20/23 5:00p.m. -9:00p.m.
월 8/21/23 8:30a.m. -8:30p.m.
- ♥ 장소 : Buena Park, CA
- ♥ 인도자 : 전달훈 의학박사 / 리디아전 임상심리학박사
- ♥ 등록비 : \$500 (등록비는 식사포함, 전액 장학금으로 제공 합니다. 자리가 한정 되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 문의 : giftshalem@gmail.com, (714)-522-4438(GIFT)
- ♥ 주최 : GIFT for Community

함께 섬기기

살렘은 남을 돌보느라 본인 자신은 돌봄이 부족할수 있는 목회자/사모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경비와 식사를 전액 장학금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비전과 소망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설길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살렘” 세미나는 비영리단체인 GIFT for Community (501 C)가 주관하며 모든 후원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Dr. Lydia Chun

(공인임상 심리학 박사)

- Licensed Clinical Psychologist
- GIFT 상담 치유 연구원 원장
- Azusa Pacific University 가정상담 대학원과정 (MFT) 겸임교수
- GATEWAY Seminary 겸임교수
- GBC 미주복음방송 칼럼니스트



Dr. Joseph Chun

(의학박사)

- MIT 대학 졸업/UCLA 의대 졸업
- 내과, 소아과, 알러지과 전문의
- 관계심리학 수학 at the Trinity College of Graduate Studies
- 신학/영성훈련 수학 at Talbot Seminary
- GBC 미주복음방송 칼럼니스트

센터메디컬그룹 29명에 장학금 전달 ‘훈훈함’ 더해

2023년 센터 IPA 파운데이션 장학금 전달식이 15일 세라톤 세리토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전달식에는 센터메디컬그룹 제이 초이 대표와 박수영, 안우성, 조이스 리 주치의, 제니스 안, 줄리아 박 등 재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9명의 장학생들에게 1인당 1,000 달러를 수여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예년과 달리 올해 장학생 선발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보다 많은 대학 신입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였다.

전달식은 학부형들도 자리를 함께 해 전달식 후 뷔페 점심을 들며 오붓한 시간을 나눴다. 장학생들은 컴퓨터 마우스 패드, 필기용품, 타올 등이 담긴 구디백도 받았다.



2023 센터 IPA 파운데이션 장학금 전달식

2018년 설립된 센터 IPA 파운데이션은 한인 메디컬그룹 유일의 장학 재단이다. 올해로 6회째 장학금 전달의 이정표를 세운

센터메디컬그룹은 2027년까지 10년 누계 100만달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주디 기자

“창조의 세상, 시로 표현” 디카시인협회 시상식 개최

디카시인협회(이동규 목사)가 17일(토) 오전 11시에 멜리데교회에서 2023 신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사회를 본 이동규 목사는 환영사에서 “지난 1월에 협회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회원들이 꾸준히 참석해주고 있어 감사하다. 기독교 신앙을 밑바탕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일반인들도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이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푸른 초장에서의 인생’(시편 23편)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최순길 목사는 “디카로 사진을 찍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진을 통해 메시지를 주신다. 그것을 통해 감격을 얻고 있다”고 했다.

시상식에서는 최순길 시인과 마가렛 강 시인이 등단하고 축하식을 갖고 시낭송을 했다. 김종용 시인과 정원기 시인이 각각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다.

디카시인협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받은 영감으로 시를 쓰며 은혜를 나누고있다. 김민선 기자

샘커뮤니티교회, 크리스천 한인청소년 장학생 모집



샘커뮤니티교회(담임 샘 신목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크리스천 한인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학생들 중, 올 가을 대학에 진학하거나 새 학년으로 올라가는 지역사회 크리스찬 학생이다. 장학생 지원은 링크 주소 <https://bit.ly/42QOz1m> 에서 할 수 있다.

모든 지원서는 신청학생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자기소개, 신앙간증, 수혜 신청 사

유를 담은 에세이는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접수 마감은 오는 6월 30일 까지며, 수상자는 7월 초 개별 통보한다. 수여식은 7월 16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r.samshin@gmail.com 샘 커뮤니티 교회로 하면 된다.

현재까지 조성된 장학기금은 5천달러로,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각각 500달러에서 1천달러를 받게 된다.

미남침례교단에 소속된 샘커뮤니티교회

는 지난 해 10월 창립 후,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이웃의 삶을 추구한다는 비전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교회를 개방해 청소년들의 찬양 사역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샘 커뮤니티교회는 한인타운 버몬트와 1가길에 위치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메타, 성경 활용해 4천개 언어 수집 프로젝트 시작

1100개 언어로 '신약성경 읽기' 데이터 생성

미국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Meta)가 성경과 다른 종교 문헌을 활용하여 4000개 이상의 언어를 처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메타 인공지능(AI) 연구팀은 '대규모 다국어 음성'(Massively Multilingual Speech, 이하 MMS) 프로젝트의 자료 수집을 위해 성경 및 기타 종교 문헌을 활용했다. 이는 수천 개의 언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것으로, 기존의 음성 데이터 세트는 100개 이상의 언어를 처리하지 못했다.

연구팀은 세계 각지에서 번역된 성경 및 오디오 녹음본을 활용하여 1100개 이상의 언어로 된 신약 성경 읽기 데이터 세트를 생성했으며, 각 언어마다 약 32시간의 데이터가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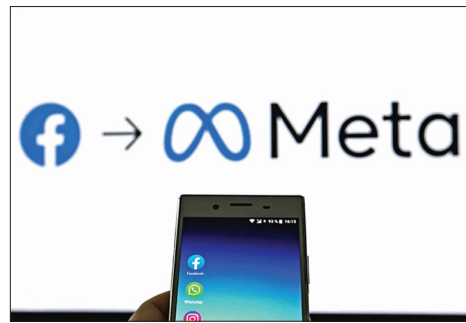
메타는 신약성경 27권과 260장을 처리하

기 위해 바이블닷컴(Bible.com) 및 고투바이블(GoTo.Bible) 및 페이스컴즈바이허어링(FaithComesByHearing)의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여기에는 원문 본문과 오디오 녹음이 수록되어 있다.

메타 AI 팀은 이후에 “다양한 다른 기독교 종교 서적의 미분류된 녹음을 활용하여 이 작업을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녹음본은 주로 남성 화자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연구팀은 “언어 모델이 남성과 여성 목소리에 동일한 수준으로 잘 작동한다”고 밝혔다.

또 연구팀은 “기독교 윤리학자들과 협의 하에 진행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신약 성경 및 번역본이 신성하여 기계 학습에 사용하기에 무리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 결론지었다”라며 “다만 코란은 번역이 불가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했다.

해당 논문은 2019년 CMU 윌더니스



©Kira-Yan/ iStock

(CMU Wilderness) 프로젝트의 사례를 소개하며, 700여개 언어에 대한 음성 합성 모델을 생성하는 데 성경이 사용되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MMS 프로젝트가 “기계 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기 위해 신약을 활용해 온 오랜 연구의 연장선에 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논문은 또 종교 기반 훈련 데이터가 언어 모델에 “특정 세계관”에 대한 편향을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AI 팀은 “이러한 위험성을 낮게 평가한다”며 “해당 모델이 생성하는 언어는 다른 도메인에서 훈련된 모델과 비교하여 거의 편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메타 측은 “세계의 많은 언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현재의 음성 인식 및 음성 생성 기술의 한계는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기술이 정반대 효과를 가져오는 세상을 상상하고 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말하고 정보에 접근하고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언어를 활발히 사용하여 언어 보존을 장려한다”고 했다.

인공지능에 성경이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6월, 기독교 목상 앰인 소울타임(Soultime)의 제작자들은 당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음성으로 성경 전체를 낭독하는 오디오 버전을 출시했다. 해당 앰에는 100시간 분량의 오디오 성경이 수록되어 있다.

김유진 기자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36개월까지 0%이자가능

SUMMER SPECIAL SALE

NEW 2023 HYUNDAI IONIQ 5 SE

NEW 2023 HYUNDAI TUCSON SE

0%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36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39 Months

NEW IONIQ6 Electric SEL AWD

NEW 2023 HYUNDAI SANTA CRUZ SE

Lease Special

2023 KONA Electric SE PWD

\$199 10,000 mile/year
MSRP. Tax \$4,895 due at lease signing. For 24 Months. Lease signing.

2023 IONIQ 5 Electric SE PWD

\$299 10,000 mile/year
MSRP. Tax \$6,895 due at lease signing. For 24 Months.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H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개신교인 10명 중 7명 “진정한 신자라면 십일조 내야”

개신교인 10명 중 7명은 “진정한 신자라면 십일조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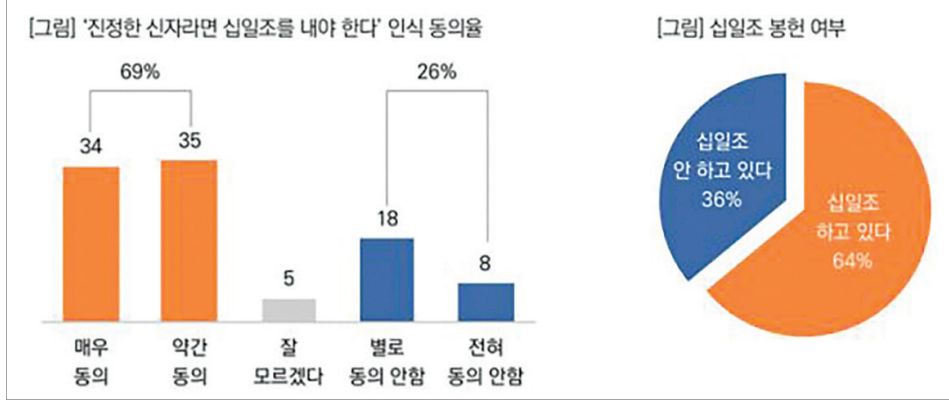
9일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주)지앤컴리서치가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중 교회 출석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헌금 의식’ 조사에서 69%(매우 34%+약간 35%)가 이런 인식에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6%(별로 18%+전혀 8%)였다.

◆ **십일조**
현재 출석 교회에 십일조를 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4%였다. 내지 않는다는 응답은 36%였다.

십일조를 낼 때 드는 생각은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이므로 아깝지 않다’는 응답이 69%로 가장 높았고, ‘십일조 내는 게 솔직히 아까운 생각이 든다’는 5%였다. ‘두 마음이 다 있다’는 26%로 나타났다.

십일조를 하지 않는 성도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부담이 돼서’(38%)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소득이 적어서’ 26%, ‘믿음이 부족해서’ 14%,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9%, ‘십일조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8% 순으로 응답했다.

◆ **헌금**
헌금을 드리는 이유로는 ‘감사의 표현’이



©목회데이터연구소

35%로 가장 많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29%,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15%, ‘선교나 봉사의 필요를 위해’ 10% ‘헌금을 하는 만큼 복을 받을 것이므로’ 등의 순이었다.

‘헌금하는 교인’을 대상으로 헌금을 드릴 때의 생각(중복 응답)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감사’ 79%, ‘의무/당연’ 58%, ‘축복’ 37%, ‘기쁨’ 32%, ‘안타까움(많이 하지 못해서)’ 18%, ‘부담감’ 16%, ‘아까움’ 7% 순으로 나타났다.

만약 헌금을 하고 있는 교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헌금 액수

를 줄이더라도 지속적으로 드린다’가 62%로 가장 많았다. 헌금 액수 자체도 줄이지 않겠다는 응답도 18%여서 10명 중 8명은 헌금을 지속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헌금을 중단하거나 간헐적으로 드린다’는 응답은 20%였다.

◆ **헌금의 종류와 강조에 대한 인식**
교회에서 하는 헌금 종류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가 49%로 가장 많았지만 ‘많다(너무+약간)’는 응답도 46%로 적지 않았다. ‘적당하다(너무+약간)’는 5%에 불과했다.

현재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목사가 평소 헌금에 대해 강조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

강조한다(매우+약간)’ 35%, ‘강조하지 않는다(전혀+별로)’ 65%로 나타났다.

담임목사가 헌금에 대해 강조한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헌금 강조를 들을 때의 느낌을 물었더니 ‘불편하다’(많이+약간) 64%, ‘불편하지 않다’(전혀+별로) 36%였다.

◆ **헌금과 신앙에 대한 인식**
또한 응답자의 51%(매우+약간)는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은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했다. ‘수입에서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는 그 사람의 신앙 척도를 나타낸다’는 것엔 64%(별로+전혀)가 동의하지 않았다.

◆ **헌금과 교회에 대한 인식**
아울러 ‘교회 생활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61%), ‘대형교회는 물질적인 신앙관으로 성장했다’(56%), ‘교회는 재력이 있는 신자를 우대하고 중직자 임명을 하는 경향이 있다’(51%)에 절반 이상이 동의(매우+약간)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소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산업화 및 경제 성장과 맞물려 성장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 과정에서 교회에도 많은 재정이 축적되었고 그러면서 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홍준표 시장, 대구퀴어에 “불법점거·음란행위 말라”

집회금지 가처분 기각 직후 다시 입장 표명

홍준표 대구시장이 “99% 성 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는다”라며 17일 예고된 대구퀴어축제를 재차 비판했다. 15일 법원이 퀴어축제 집회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직후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노동이 광화문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집회를 여는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한 시간에 80여 대의 대중교통인 버스가 오가는 대구 변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여는 대구 퀴어 축제도 단연코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1% 안되는 성소수자의 권익만 중요하고 99% 성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는다. 집회를 하려면 다른 곳에 가서 하라. 99% 시민들이 불편한 변화가 도로점거 불법집회는 공공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점거 불법은 용납지 않겠다. 도로불법 점거는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집회는 하되 대중교통 방해하는 불법 도로점거 집회는 단연코 불허 하고 공연 음란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김광진 부장판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사)는 대구 동성로 상인회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주최하는 무지개 인권연대 등을 상대로 퀴어축제 개최를 금지해 달라며 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15일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영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퀴어반대본부 등은 “대구 중구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집회 때문에 영업권과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상가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무대 설치와 물건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 시장은 8일 가처분을 지지하며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 줄 수 있는 퀴어 축제를 나도 반대한다.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퀴어 축제는 안 했으면 한다”고 한 바 있다.

김진영 기자

“고위급 탈북 급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 전해져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개월여가 흘렀는데, 과거 정부 5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일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탈북민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연론들에 따르면, 13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떤 직위와 신분의 북한인이 어떤 나라와 경로를 거쳐 한국에 (을 계획이거나) 왔다는 것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우리 안보를 위해 남북한 관계를 우리 계획대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망명 또는 탈북과 관련한 이

같은) 추세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유럽 근무 중이던 북한 외교관의 탈북설 보도에 대한 답변이다. 정부는 추가 연쇄 탈북 확대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유럽 등 세계 각국에 근무 중인 북한 외교관이나 무역대표부 일꾼 및 가족들의 탈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식당 대리 지배인 A씨와 아들의 탈북에 이어, 유럽 주재 북한 외교관 가족이 한국 정보당국에 망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웅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정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3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 (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 (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외래 진료 클리닉

희를
긋다

드디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조이스 리, M.D.

진료과목

만성 질환

→ 당뇨, 비만,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노인성 질환

→ 치매, 낙상,
우울증, 요실금,
수면장애, 보행
장애, 영양실조

부인과 질환

→ 질염, 골반염,
자궁경부염

예방 접종

왜 병원에서의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오랜 대기시간만큼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아오셨나요?

무성의 진료로 숨은 병을 발견하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시니어 환자분들을 위해 최적의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 센터메디컬클리닉을 경험해 보세요.

**하루 진료 환자 최대 7명, 인당 최대 1시간!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 환자 등록 선착순 300명까지 / 진료 사전 예약 필수

- 세분화된 현대의학 단점 보완
- 질병 예방·건강한 삶 유지 초점

가정의학과 박사
조이스 리 초대 주치의
Joice Rhee, M.D.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진료시간 :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19-3024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 플러튼 골드짐 근처 T-Mobile과 Subway 사이에 위치

“물질→현지인 중심으로”... 한국 선교계, 새 전략 모색

선교 지도자 640여 명 참여 제8차 NCOWE 개막

“크리스텐덤(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나 사회) 시대의 선교가 외부에서 오는 자 중심이었다면, 코로나 이후 세계 기독교 시대의 선교는 내부인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다.”

세계 기독교 시대 한국 선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엔코위)가 13일 개막했다. 지난 2018년에 이어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목회자, 선교사, 다음 세대, 교수 등 6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다시, 그곳에서’(엡 2:10), ‘세계 기독교 시대에 한국선교의 재고와 전망’(Rethinking Korean mission in World Christianity Today and Beyond)을 주제와 부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서는, “서구 교회가 쇠퇴하고 선교 영향력이 감소하는 반면 제3세계 교회가 부흥하는 세계 기독교 시대”에 한국선교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날짜별 주제에 대한 강의와 설교, 10개 트랙별 선택 세미나, 케이스 스터디, 선교사 스토리(간증)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선교’ 미명 아래 이기적 욕망 점검할 때
첫날 개회예배 설교를 전한 법인이사장이



한국선교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엔코위)가 개막했다.

규현 목사(수영로교회)는 “오늘날 선교가 위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고 중단이 없다”며 “목회와 선교라는 미명 아래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이 숨어 있진 않은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자”고 전했다.

KWMA 사무총장 강대홍 선교사는 한국교회가 그간의 물질 및 선교사 중심의 선교에서 벗어나 현지인 중심의 선교로 나아가길 강조하며, ‘비서구권 중심의 선교 전략’으로 △돈(프로젝트 중심)의 선교를 지양하고 △다양한 현지의 선교기관을 활용하며 △외부인 중심의 선교가 아닌 내부인 중심의 선교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네트워크 중심



첫날 저녁 예배에서 기도하는 참석자들. 640여 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이번 대회에 참여했다. ©음광민 목사 제공

로 선교사를 파송할 것 △기도의 능력을 사모할 것 등을 제안했다.

주제 강의는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문상철 원장(카리스교차문화연구원), 흥현철 원장(한국선교연구원)이 전했다.

‘새로운 선교를 소망하며’를 주제로 강의한 한철호 선교사는 한국 선교의 장점으로 △활동적 △영적 전투에 대한 이해력 △좋은 신학 교육 △희생적 헌신 △전도에 대한 열정 △어려운 상황에서의 생존력 △파송교회의 강력한 지원 등을 꼽았다. 단점으로는 △단순하고 전략 부재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타문화에 대한 민감성 △현장에서 협력 △과도한 교단 혹은 지역교회 중심 등을 꼽았다.

◆일방적 아닌 토착교회와 동반자 관계로
‘글로벌 선교의 현실에 개입하기’를 발제한 문상철 원장은 로잔대회 포커스그룹의 인터뷰를 토대로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다른 몸들은 상호모순적이라기보다 상호보완적인 목소리를 냈다. 많은 경우에 그 다름은 표면적인 차원의 것이었고, 깊은 차원의 공통점들은 경청의 과정이 나선형으로 진행돼감에 따라 점점 더 명백해졌다”며 “그 공통점들은 성경적 진리에 대한 복음주의적 신앙의 본질을 반영한 것이다. 이 현상은 글로벌화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에 같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국선교의 이해와 과제’를 발제한 흥현철 원장은 “한국선교운동은 양적인 성장의 한계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속성을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일방적 방향성이나 실용주의적인 접근보다는 다양한 세계 기독교 속 토착교회들과 상호적 또는 동반자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선교 현장과 토착교회들의 의제와 그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찬수 목사 ‘거룩함, 하나님의 꿈에 집중’
첫날 저녁 주제강사로 나선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하면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며, 선교사의 덕목으로 거룩함과 회개, 하나님의 꿈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송경호 기자

“선교지는 열등? ‘구원자 콤플렉스’... 현지에 리더십 이양해야”

제8차 NCOWE서 ‘세계 기독교’ 상황서의 선교 방향 논의

한국 선교계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엔코위)가 13일부터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 열리고 있는 가운데, ‘약함의 선교’, ‘급진적인 리더십 이양’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희생적 삶과 영적 능력 기초 ‘약함의 선교’ 비서구교회가 주도, 서구+한국은 ‘참여’

둘째 날인 14일 오전 ‘세계기독교와 한국교회 선교’를 주제로 발제한 임태순 선교사(GLFFocus/GMP)는 ‘세계 기독교(World Christianity)’에 대해 “서구의 기독교가 근대 선교운동을 통해 온 세상에 확산된 상태로 이해돼 온 관점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라고 했다. 서구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진 것이라기보다, 각 문화에 심긴 복음은 그 문화의 고유한 기독교 정체성들로 새롭게 형성되고, 그것들이 연결되면서 만들어진 전혀 새로운 모습의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임 선교사는 “세계 기독교 상황에서의 선교운동은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비서구 다수 세계교회들과 함께하는 선교운동이어야 한다”고 했다. 2021년 IBMR 따르면, 선교사 파송국가 2~6위는 브라질, 한국, 필리핀, 나이지리아, 중국 순으로 비서구 국가들이다. 서구적 선교 모델을 경험하고 이후 피선교지 교회로 선교운동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 한국교회는 이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그는 “이미 비서구교회들은 많은 재정과 문명적 우위에 기초해 운영되는 서구의 선교 구조를 감당하기 어렵기에 ‘약함의 선교’, 즉 희생적 삶과 섬김, 그리고 영적 능력 등에 기초한 초기 기독교의 선교 영성을 담아내는 선교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전도지역 선교에 대한 재발견’을 요청했다. 그는 21세기 세계 기독교 시대가 여러 면에서 ‘선교 모라토리엄(일시정지)’을 요구받은 1970년대 상황과 유사해 보이지만, 2021년 현재 전 세계는 아직도 28.2%의 인구가 복음이 차단된 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영적 부담은 여전히 소중하고 회복해야 할 영역이라고 했다.

나아가 “문화적·지역적으로 미전도지역에 더 근접한 교회가 주도하고, 서구(한국) 선교세력은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비서구교회가 영혼 구원, 교회 개척, 영적 은사 등 보다 보수적이고 선교의 영적 차원을 강조하는 반면, 서구교회는 피조세계 전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자신화’, ‘교회의 선교적 본질 회복’ 등 서구교회의 침체를 해결하는 내부적 개혁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우월주의·선민의식, 선교지 바라보는 잘못된 의사결정·성경해석·재정 급진적 이양 필요
‘세계 기독교 상황에서 한국선교의 변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 한종석 선교사(GMF)는 ‘선교지에 대한 편견’을 꼬집으며 의사 결정, 성경 해석, 재정에 있어 현지인 사역자에 대한 리더십 이양을 강조했다.

한 선교사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엔코위)가 13일부터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 열리고 있는 가운데, 둘째 날에는 다음 세대 선교동원, 디아스포라, 전방개척선교, 자신화학 등 10개의 주제별로 트랙세미나가 진행됐다. ©평창=송경호 기자

가 선교지의 사람보다 영적·지적으로 우월하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한국교회가 가진 상대적 물질의 풍요함 때문이며, 근본적으로 ‘열등한 그들을 돌봐 줘야 한다’는 우월주의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다’는 선민의식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다른 식민주의의 모습은 구원자 콤플렉스”라며 “영적으로 지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내적인 갈망이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거나 현지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면, 이것은 건강한 선교사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변화된 선교 환경에서 지속적이고 긍정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의사 결정’, ‘성경 해석’, ‘재정’ 세 가지 영역에

서 인식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피선교지) 자신들의 상황과 문화에 맞는 복음의 이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 ‘모든 문화’에 현지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 줘야 한다”며 “현지의 당장의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 조달하기보다, 비록 우리 눈에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가진 것을 발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토록 격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러할 때 선교지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며(자치), 외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고(자급),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얻은 경험과 성찰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며 적용할 때(자신화), 비로소 스스로 복음을 힘 있게 증거하는 (자전) 공동체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경호 기자

선교사와 현지 지도자의 ‘동상이몽’ ... 같은 질문, 다른 대답

선교 현장의 방향성과 리더십 이양 등을 두고 선교사와 현지인 사역자 간의 상당한 온도차가 감지됐다.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엔코위) 둘째 날에는 아프리카와 몽골 선교지 현황에 대한 브리핑도 있었다.

둘째 날 주제강의에서 ‘세계 기독교: 아프리카의 실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영섭 선교사(GMS)는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NGO들의 구호 광고에서처럼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선입견을 벗어 달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여주면서 블랙이 아닌 컬러풀 아프리카로 인식이 바뀌고 있고, 젊은이들은 유학으로, 상인들은 비

즈니스로, 종교인들은 선교로 북미와 유럽과 아시아에 가고 있다. 타잔 시대, 부시맨 시대, 아웃 오브 아프리카 시대는 벌써 지났다”고 했다.

김 선교사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아프리카 기독교는 괄목할 수준으로 성장했다.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는 100년 전에는 무슬림의 4분의 1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는 전체의 46%를 차지한다. 회심을 강조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신앙의 기본을 두며, 아주 활동적이다. 그는 “아프리카가 새로운 기독교 중심 세계로 부상했다”고 소개했다.

김 선교사는 아프리카 기독교 지도자들이 전해 온 조언을 소개하며 △우리

아프리카 기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교회 개척, 신학교·교단 운영)은 우리가 하도록 두라 △우리가 어려워하는 사역들(무슬림 사역, 미전도종족, 제자 양육, 성경 번역, 문해사역, 전방개척, 전문인사역)에 협력하라 △현지 문화와 현지어를 배우고 함께 사역하라 △한국인들만 모여 사는 게토화를 만들지 말고 현지인들과 더불어 살라고 권고했다.

김 선교사는 “우리는 그 동안 아프리카 대륙을 너무 경제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우리가 무조건 줘야만 하는 나라로 봤다”며 “우리나라에서 하는 식으로 지교회를 개척하는 자기중심적 선교를 하지 말고, 기존의 현지 복음주의 교단 및 사람들

과 협력하면서 사역지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개척 부도 단계에서 동역 이양 단계로’를 주제로 발제한 이대학 선교사(국제풀뿌리선교회 몽골 대표)는 “몽골 선교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끼친 영향이 실로 크다고 자타가 인정한다. 지리적인 인접성, 인종적인 유사성, 언어적인 친연성, 한국인에 대한 환대, 한국교회의 선교적 열정, 한국 선교사들의 연합과 협력 등의 요인으로 몽골 땅에서 많은 선교적 열매를 거뒀다”고 했다.

몽골 목회자들은 선교사들이 이양과 철수 이후에도 사역지 지도와 멘토링을 계속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만에 하나라도 실수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끝까지 간섭하지 말고 신뢰해 주기를 선교사들에게 요청했다.

송경호 기자

美 남침례회 총회, 女 목사 금지법도 압도적 결의

영구적 적용 위해선 내년 총회서도 통과돼야

미 남침례회(SBC) 총회가 여성이 '어떤 종류의 목사'로도 봉사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으로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SBC는 여성 목회자 금지법을 공고히 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14일 오후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SBC 총회에서 12,000여 명의 총대들은 버지니아주 알링턴침례교회 담임인 마이크 로(Mike Law) 목사가 주도한 SBC 헌법 개정안을 80%의 지지로 통과시켰다.

새로운 법안은 "SBC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 어떤 여성도 목사의 직함을 가질 수 없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SBC 헌법 개정안이 영구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SBC 헌법에 따라 내년 총회에서도 통과돼야 한다.

로 목사는 이날 "나는 남침례회 총회의 헌법이 '여성을 어떤 종류의 목사로도 긍정하거나 임명 또는 고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단의 신앙선언문인 '2000년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도 "목사의 직분은 성경에 의해 자격을 갖춘 '남성'들로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앙 선언문을 연구하고 작성한 척 켈리(Chuck Kelley), 알 몰러(Al Mohler), 리처드 랜드(Richard Land) 목사는 지난해 성명을 통해 "목사"란 목회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목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표 결과는 릭 워렌(Rick Warren) 목사가 설립한 새들백교회(Saddleback Church)를 교단에서 제명하는 결의가 이뤄



14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SBC 총회에서 총대들은 '여성 목사 안수 금지'를 명시한 교단 헌법 개정안을 80%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Baptist Press

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새들 백교회는 여성 목사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이

김유진 기자

美 성인 69%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경기 출전 반대"

갤럽 여론조사서 2년 전보다 반감 커져

미국인의 대다수가 생물학적 트랜스젠더 남성이 여성 스포츠 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은 지난 5월 1일부터 24일까지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트랜스젠더 남성과, 이성처럼 보이기 위한 화학적 거세 및 성전환 수술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조사의 오차범위는 +/-4%포인트였다.

여론조사 결과,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스포츠 팀에서만 뛰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9%는 반대, 26%는 찬성했다. 2021년 5월에 진행된 동일한 설문에서는 각각의 답변이 62%, 34%였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인들 사이에서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경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감소했다.

LGBT 이데올로기를 적극 수용한 민주당원들의 경우에도 찬성 의견이 55%에서 2023년 47%로 감소했다. 반면 반대 의견은 48%였다. 공화당(93%)과 무소속(67%)의 대다수는 반대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미국의 24개 주에서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운동 선수에게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스포츠 팀에서 경쟁하도록 법률을 제정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선수들이 자신의 성별에 맞는 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지지해 온 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지적했다. 미국 파워리



프팅(USA Powerlifting)은 운동 경기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리한 몇 가지 요인으로 '신체 및 근육량, 골밀도, 뼈 구조 및 결합 조직 증가'를 꼽았다.

2020년 12월 영국 스포츠의학저널(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남성 운동선수는 2년 동안 여성 호르몬을 복용한 후에도 여성 경쟁자보다 우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스젠더 남성 운동 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해 기록을 경신한 사례 중에는 트랜스젠더 남성 수영 선수 리아 토마스(기존 이름: 윌리엄 토마스)의 경우가 있다. 연구자들은 주정부 여성 스포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또 "스스로를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으로 규정하고 호르몬 등의 약물을 복용하거나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되는 일인지" 묻자 응답자의 55%가 "잘못됐다"고 답했다. 이는 2021년의 51%에서 더 늘어난 것이다.

강혜진 기자

美 복음주의 개신교인 80% "성중립 대명사 사용 불편"

미국 공공 종교연구소(PRR)의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인의 10명 중 4명 이상이 성별 중립 대명사의 사용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전체 미국인의 36%는 "친구가 성별 중립 대명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편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43%는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별 중립 대명사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가진 '논바이너리(non-binary)' 개인에게 '그(he)'나 '그녀(she)' 대신 '그들(they)'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은 성별 중립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버런트 매거진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10명 중 2명(20%)만이 "친구가 성별 중립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고 답했다.

백인 가톨릭 신자(31%), 백인 주류 및 비주류 복음주의 개신교인(35%)은 10명 중 4명 미만이 "성별 중립 대명사를 사용하는 친구가 편하다"고 답했다.

히스패닉계 개신교인은 10명 중 3명(26%) 미만이 성 중립적 대명사에 편하다고 말한 반면, 히스패닉계 가톨릭 신자는 약 34%가 동의했다. 흑인 개신교인과 기타 유색인종 개신교인은 약 35%가 성별 중립 대명사 사용에 편하다고 답했다.

친구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다른 대명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 마음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편안하다"는 응답은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 10명 중 2명(20%)에 불과했으며, 히스패닉 개신교인(30%), 백인 가톨릭 신자(31%), 히스패닉 가톨릭



신자(34%), 흑인 및 기타 유색인종 개신교인(35%), 백인 주류 및 주류 복음주의 개신교인(36%) 순이었다.

PRR이 공립학교에서 동성연애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 대해 묻자 미국인의 약 34%는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공화당원 응답자의 55%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토론에 가장 반대하는 그룹은 백인 복음주의의 기독교인(62%)이었다.

연구소의 CEO인 멜리사 테크만은 뉴스 웹사이트 아시아옥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미국인은 누군가의 외형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 사용에 대해 더 큰 불편함을 느낀다"며 "젊은 세대가 성 중립적인 대명사를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올해 발표한 '청소년 위험 행동 감시 시스템'(YRBSS) 최신호에 따르면 미국인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는 그들의 성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2021년 조사에서 미국 고등학생의 74.2%가 "이성에게만 끌린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중 11.9%는 "양성애자", 3.2%는 "게이 또는 레즈비언", 9%는 "기타/탐색 중"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원서접수 일정

원서 접수 마감: 7월 마지막 주
수업시작: 8월 중

입학특전

- 통신(Online)수업으로 학위 취득 가능
- 유학생 I-20 발행
- 연방정부 장학금 및 학비용자 (FSA)
- 선교사 및 목회자 장학금 수여
- 미국 우수 학교들과의 학점 교류
- Ebook Library Service 제공

입학문의

입학처 (백옥경 과장) : (714)525-0088
MORE INFORMATION : www.gm.edu



교육인가기관



그레임스 미션대학교

2023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학사

석사

박사

- 신학 (BATH)
- 기독교상담학 (BACC)
- 목회학 (MDiv.)
- 기독교 교육학 (MACE)
- 선교학 (MAICS)
- 기독교 상담학 (MACC)
- 선교학 (DMiss)
- 교차문화학철학 (PhD ICS)
- 교육학철학 (PhD ES)
- 상담심리학철학 (PhD CS)

“국제사회, 中 구금시설 내 탈북민 강제복송 막아야”



2022년 10월 중국 길림성 화룡시 화룡변방대 위성사진 ©NK NEWS 제공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는 13일 개최된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이하 CECC)에서 중국 내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하고, 이들의 강제복송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CECC에 참석한 송하나 NKDB 국제협력 디렉터(이하 디렉터)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송환에 대한 위협적 실태를 조망했다. 그러면서 북·중 협력관계에 기반한 반인도적 구금 및 강제 송환 행위를 자행하는 중국 변방대대(PSSDC) 시설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NKDB는 또한 본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북한 함경북도과 국경을 마주하는 중국 길림성 화룡시 소재 화룡변방대대의 위성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중으로 향한 탈북민, 인권 위협 상황에 지속 노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실태에 대한 기록 분석 및 보관을 목적으로 2003년에 설립된 NKDB는 20여 년간 약 2만 여명의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다. NKDB는 현재 총 8만 5,392건의 인권침해 기록과 총 5만 5,072의 인물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강제송환 사례는 8,125건, 강제송환 이후의 인권 침해 피해 사례(폭행, 성폭행, 처형 등)는 32,198건에 달한다. NKDB는 또한 현재 중국 내 거주 중인 탈북민의 수를 약 10,000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법적 지위 및 보호도 보장받지 못한 채 도피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이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 中 억류 탈북민들에게

더 큰 위협”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는 코로나 종식은 중국 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NKDB 측의 설명이다. 북·중 국경 인근에 위치한 중국 변방대대 구금시설에 억류된 탈북민은 북한의 코로나 봉쇄로 현재까지 누적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경봉쇄 해제는 곧 이들의 강제송환 절차 속행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NKDB 측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한의 국경 폐쇄가 북한 주민들의 탈북 경로를 봉쇄시키며 이들의 고품을 더욱 강화한 것은 문제임이 자명하다”며 “그러나 중국 내 많은 수의 탈북민이 억류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 종식으로 인한 북·중 국경의 개방은 또 다른 극심한 인권 침해 사태를 야기할 뿐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中, ICRC 및 UNHCR의 억류시설 접근 보장해야”

아울러 NKDB는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국적 난민들에게는 이를 보장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중국 정부에게 합의한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재차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변방대대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 적십자회(ICRC) 접근 허용 및 구금시설 현황과 구금자 처우에 대한 조사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수용해 탈북민 구금실태에 대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형구 기자

나이지리아 카두나서 피랍 기독교인 16명 석방돼

지역 무슬림이 몸값 일부 지원 “화해의 새 시대 시작되길”

나이지리아 카두나주에서 납치된 16 명의 교인들이 최근 몸값을 지불하고 한 달 만에 풀려났다. 그 몸값 중 일부는 지역 무슬림 공동체가 지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연대(CSW)는 지난 6월 4일 치쿤 지방 정부 발달라 지역에 있는 베게침례교회(Bege Baptist Church) 교인들이 석방됐다고 전했다.

지난 5월 7일 주일예배를 드리던 중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된 약 40명의 성도 중 대부분은 탈출하고 16명은 한 달간 납치돼 있었다.

나이지리아기독교연합회 카두나 지부 존 조셉 하야브(john Joseph Hayab) 목사는 “현지 무슬림이 몸값을 기부했고, 납치범들이 요청한 오토바이를 구입할 수 있었다”면서 “16명 모두가 이제 집으로 돌아 왔음을 확인했다. 몸값을 지불하는데 도움을 준 현지 무슬림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CSW 설립자인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 대표는 지역 무슬림 공동체의 기부에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CSW는 “신앙 공동체들의 이러한 주목할 만한 협력은 카두나주 나시르 엘루파이 전 주지사가 자신의 후임자와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최근 전달했던 연설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엘루파이 전 주지사는 주요 정치 부문에서 무슬림 지배권을 확보한 데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그의 재임 기간 종교 편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다.

엘루파이 전 주지사는 “누구의 권리도 종교 때문에 침해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재임 기간 카두나 남부 대부분의 기독교 지역에서 무장 공격이 증가했다고 CP는 전했다.

토마스 대표는 “카두나 남부에서 인권 침해가 종교적 단층선을 따라 계속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권한을 가진 이들이 다른 의제를 우선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CSW에 의하면, 엘루파이 전 주지사가 내린 일련의 재산 철거 명령의 일환으로 알레리 침례교회가 파괴됐으며, 최소 8 명이 생명을 잃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는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 철거 명령에 저항하던 시위대는 엘루파이가 만든 단체의 충격을 받았다.

이에 대해 토마스 대표는 “우리는 종교적 소수자나 전 주지사의 정적들을 주요 표적으로 한 카두나주의 철거 명령으로 생긴 인명 손실을 애도한다. 이 철거 명령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최근 다시 수행됐다”며 “나이지리아 당국이 종교적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전하고, 종교와 관련된 폭력과 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며, 취약한 공동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찬례 오후 7:30 한여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배리세풀 OC세풀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성찬례 오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찬례 오후 1:30
금요예배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오전 6:00
19314 Resala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8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Redeeming Grace(EM)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이창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1부예배 오전 9: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중교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찬례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백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벧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제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 한인교회/LA구국제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찬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에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2부예배(O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지영한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임혁훈 담임목사
아린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15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청년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예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일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신용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필일 오전 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20 토요일 오전 11:15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관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려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후 1:30 박훈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러시아 연해주와 시베리아로 북방선교의 지평을 넓히다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두만강과 약 18킬로를 접하고 있는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은 조선 말기인 1863년에 함경도의 주민들이 극심한 기근과 정부의 수탈로 인해 고통 받았던 13가구가 국경을 넘어 광활한 대륙이며 무주공산 같은 토지를 개간하였으며 특히 벼농사를 성공 시킴으로 조선인들에게는 신천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이들의 성공적인 경작과 정착이 소문이 나면서 이에 함경도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방의 빈농들이 연해주로 몰리면서 1869년에는 약 1만여명이 이주하였고, 1914년에는 6만3천여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들 연해주로 정착한 주민 중에는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기에 이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목회자가 필요하게 됨으로 그곳에 선교사 파송도 필연적으로 수반되었던 것이다. 먼저 장로교에서는 1909년에 최관홍을 시베리아 연해주 지역의 중심지인 블라디보스토크에 파송하였다. 이어서 오순애, 최일영, 최홍중, 박창영, 한가자를 파송하였다. 1910년에는 최관홍 목사가 개척한 교회에는 출석교인이 648명과 세례교인 39명과 학습교인 68명이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로부터 조선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에 제동을 걸면서 어려움이 따랐고 심지어는 그들의 종교로 개종할 것을 압박하였다. 이 러시아 지역은 1천여년 가까이 러시아정교가 국교였기에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은 매우 강하였다. 이를 거부하면 종교법에 따라 감옥을 가야 했고 압박이 거세지자 최관홍 목사는 그만 러시아 정교회로 개종하였고 그곳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는 9년 후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장로교회로 복귀를 신청하였다. 조선에수교 총회에서는 이어서 1918년에 김현찬 목사를 그리고 함경남도 노회는 박정찬 전도사를 다시 파송하면서 선교에 활기를 띠었다. 이들의 사역 대상은 조선인들이었다. 러시아인들은 그곳 조선인들을 까레아스키(고려인)이라 불렀다.

이어서 감리교에서도 1912년에 손정도 목사를 파송하였으나 그도 러시아 정부로부터 러시아

정교회로 개종할 것을 강요 받자 그는 이를 거부하고 귀국하였다.

1920년 이후에는 캐나다 장로교 소속의 프트(Foote)선교사가 조선인 교회의 사역을 지도하였다. 감리교에서도 다시 러시아 선교를 재개하였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협력하여 선교를 함께 함으로 사역이 매우 활성화 되었다. 1922년에는 연해주 지역의 중심지인 블라디보스토크와 북쪽 내지에도 교회가 34곳과 교인 1,935명과 목사 5명과 초등학교 5개와 야학교 35개가 설립되어 교회와 교육 사역이 크게 신장되었기에 시베리아 노회도 설립되었다.

한편 침례교는 장로교와 감리교보다 더욱 시베리아 지역에 선교 역량을 집중하였다. 그 이유는 미국 침례교는 장로교와 감리교에 비해 늦게 조선선교를 시작함으로써 이미 전국적으로 구축된 선교지역이 확정되었기에 이에 대한 사역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만주와 러시아 선교에 집중함으로써 큰 결실을 거두었다. 조선에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로 들어온 펜윅(Malcom C. Fenwick, 1863-1936)은 1906년에 대한기독교회를 창립하면서 교회 본부를 강원도 원산에 두고 남만주와 연해주를 포함한 시베리아 지역을 전도사역을 확장하였다. 너무도 광활하여 그곳을 5개로 분할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 이누치노, 포시에트, 크라스키노, 파르티잔스크였다.

이 지역의 사역자로서 가장 크게 사역을 확장시킨 최성업 목사와 그의 아들 최응선은 시베리아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버지 최성업이 7개 교회와 아들에 의해 개최된 14개의 교회가 있었다. 이들이 개척한 교회는 시베리아 지역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그 공로가 매우 컸다. 그렇게 되기까지 4명의 순교자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현대에서도 사람다운 삶을 위해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사전문지 '애틀랜틱(The Atlantic)'의 기자 소피아 길버트는 '인간이 되기 위한 공부(Learning to Be Human)'라는 기사를 통해 기술 중심으로 급변하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인문학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소피아는 "문학, 역사, 예술, 음악, 철학 등 인문학이 알려주는 인간적인 삶과 그에 대한 해석은 과학이나 기술로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수년 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실시한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상당수가 인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국민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인문학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68.4%로 높았습니다.

'인문학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성찰하므로'라는 응답이 64.8%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적용과 실천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높이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내용이 어렵고 추상적이라서'가 39.3%, '취업 및 직장 업무에 직접적 관련성이 적어서'가 25.2%로 집계돼 인문학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성은 알겠는데 정확한 개념도 근접 가능한 자료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로마 인문학의 출발과 동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키케로보다 조금 늦게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한 신약 성경은 기독교 인문학의 진수입니다. 기독교는 문서 운동입니다. 신앙의 진수를 전한 복음서와 서신의 저술, 유포 그리고 탐독의 과정이 매우 인문학적입니다.

초대 교회가 기독교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문서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읽었던 것은 상당한 수준의 인문학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배우고 훈련받은 속사도 교부들(Apostolic Fathers)이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을 문서로 남긴 것은 시대와 그 상황을 이해한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인문학 운동에 기수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인문학을 대표하는 키케로와 세네카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인문학과 초대 교회

와 중복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키케로는 기원전 106년 1월 3일에 태어나 기원전 43년 12월 7일 사망했고 세네카는 기원전 4년에 태어나 기원후 65년에 사망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기원후 5년경에 태어나 기원후 67년경에 사망했다고 추정합니다.

바울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키케로와 세네카와는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 다소는 길리기아 지역의 정치적 수도였습니다. 로마의 웅변가요 정치가요 인문학자였던 키케로가 이곳 총독을 지냈습니다.

바울과 세네카는 키케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키케로가 총독을 지낸 길리기아 출신이었고 세네카는 키케로의 뒤를 잇는 대표적인 인문학자였습니다. 신약성서 외경 중에 '세네카와 바울의 왕복 서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행전'과 '바울묵시록'과 더불어 바울과 관련된 외경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바울과 세네카 사상과 인문학적 소양이 닮은꼴이었다고 합니다.

키케로는 기독교 신앙과의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결혼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키케로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 키케로는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의 대표주자였습니다. 키케로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철학을 일깨웠으며 지속해서 철학을 추구하게 했다고 알려집니다.

바울은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를 잘 알았습니다. 바울이 교육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당시 길리기아 인문학적 소양을 습득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인문학적 소양이 확실하게 드러난 상황은 사도행전 17장 아테네 설교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아테네 설교에 세네카의 말을 다섯 번 인용했거나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세네카 사상에 정통했고 아테네 철학자들과 시민들을 설득하는데 활용할 만큼 세네카를 존중했습니다.

바울은 당대에 가장 설득력 있는 세네카를 포함한 당대 철학자와 명문장을 인용하면서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설득했습니다. 문화적 자부심에 충신했던 아테네 철학자들과 시민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신들보다 세네카를 더 잘 아는 바울 논리에 감복했을 것입니다.

바울 외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도 편지를 썼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편지를 쓰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한결 같이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설득하고 믿음을 독려한 것은 인문학의 영향이라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서신은 당시 수사학이 설득의 수단으로 강조했던 자료입니다. 당시 정치인이 편지로 대중을 설득하고 후원을 유도하고 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사도 시대가 끝나자 사도들을 이어서 등장한 인문들이 속사도 교부(Apostolic Father)들입니다. 이 속사도 교부들이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정신과 삶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초대 교회를 유지하고 그 신앙을 이어간 수단 중의 하나가 글이었습니다.

속사도 교부들이 글을 남겼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은 지독한 가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고 사형수가 되어 암송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자료들은 신약 성경 다음으로 권위를 가진 문서였습니다. 이 글들은 지금 읽어도 감동이 되는 건강한 권면과 설득입니다.

기독교는 문서 운동이고 인문학 운동입니다. 기독교는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경전 종교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건강한 독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독교 고전들을 읽어야 합니다. 현대 교회가 초대 교회보다 천박하고 깊이나 영향력 면에서 약해진 이유를 기독교 인문학의 약화에 기인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현대 교회는 인문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dvertisement for 2023 US Christian University Fair featuring various institutions like Talbot Theological Seminary,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Grace Mission University, and others, listing programs and contact information.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주말 예배와 찬양은 진영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66-7287



이미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한주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이현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30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송재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1:00
목요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박지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JOE HONG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장경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제임스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남상권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ointingchurch.org



김상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오상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김창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jejo Dr. Glendale, CA 91206
T. (210)713-3006



차권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집회 저녁 7:00
토요일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강은덕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d@hanmail.net



김영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른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정용암 담임목사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신용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일성경집회 오후 7:30
토요일참가기도회 오전 7:30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정달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김명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야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회 오전 10:00(주일)
스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서민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주말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저녁 7:30
리크레스타 리크레스타 주일예배 3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장현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참가기도회 오전 8:00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윤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말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신현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곽태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장동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임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이석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김요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새벽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30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정찬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야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김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주일학교 & Youth 오후 1:1, 30분
금요성경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종교개혁 50주년 기념식 주일 저녁 8시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주요일 새벽 5시 30분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최주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표희곤 담임목사

주일예배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오전 11:45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류연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김성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주백성교회

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




양수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권혁래 담임목사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쿠키 모임 오후 6:00(월)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조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om



류광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김용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정하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오충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요정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인제(요정시)
주중예배 목요 오후 8:00(영어) / 금요 오후 8:00(영어)
파워워십 2번째주 금요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 오후 8:00(영어)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양국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토요중보기도회 오전 10:30
오전 6:00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김요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Global United Church

3333 Wilshire Blvd #325, LA, CA 90010
T. (213)221-9147 yohan72@gmail.com



양홍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기도회(주일) 오전 11:00
오후 3:00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강준민 칼럼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제가 만나 본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 다.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 분도 30분만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면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합니다.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문제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를 압도하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온 땅이 부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

와게 은혜를 입었더라”(창 6:8).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도 나중에 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술에 취해 별거벗고 잠을 자면서 드러내서는 안 될 부분까지 드러냈습니다. 함이 자기 수치를 덮어주지 않았다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창 9:25).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 때문에 노아의 후손이 보존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 사 را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입니다. 그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사라는 슬픈 여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함께함으로 그의 후손을 통해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전개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네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태어난 아들들이 12명이었습니다. 친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함으로 그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를 은 20에 팝니다. 그들은 동생을 인신매매하는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복을 받고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악을 선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창 50:20).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악을 선으로 바꾼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은 야곱 가정보다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압살롬이 그의 형제

를 죽였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함으로 아버지를 왕좌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정말기가 막힌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마 26:56). 바울은 한 때 비방자, 박해자, 그리고 폭행자였습니다(딤후 1:13).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엡 1:6).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엡 1:7, 2:7; 딤후 1:14). 하나님의 은혜는 크십니다(시 145:7).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고후 9:8).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하나님의 은혜는 공활히 여기시는 은혜입니다(엡 2:4; 롬 9:15).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놀라운 일들이 전개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은 모두 하나님의 공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죄를 덮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합니다.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히 10:17).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제하여 버리십니다(골 2:14).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상실과 질병과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고후 6:4), 교회의 일꾼(골 1:25),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골 1:23).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히 4:16).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문제를 압도합니다. 은혜만이 문제를 기적으로 바꿉니다. 은혜만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은혜만이 문제를 잘 견디어 보석으로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은혜가 바닥이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김한요 칼럼

밥상 공동체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제가 한국에서 모 신학교 총장님과 새로 사인 교수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교수님 부부가 결혼기념일이라 축하해 드리는 의미도 있고, 저도 논문을 위한 프로포절을 마친 후라 겸사로 근사한 식당으로 가자고 했는데, 보리굴비집에 갔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낯선 음식

식이라 기대하며 갔는데, 찬물에 밥을 말아 굴비를 한 점 올려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나게 먹는 음식이라 생각했는데, 먹을수록 맛이 우리나라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묘한 궁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굴비를 찬물에 밥을 말아 같이 먹을 생각을 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 앉은 교수님은 굴비에 손도 대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은 어려서부터 비린내에 보리굴비를 못 드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다른 식당을 가자고 하시지...” 교수님의 변명은 오늘이 결혼기념일인데, 아내는 자기와 결혼 후 보리굴비를 먹지도 못했어서, 오늘이라도 먹게 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밝게 웃으시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

습니다. 보리굴비를 먹어 본지가 몇 년 만인가 되니며 맛있게 드십니다.

음식은 같이 즐길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모님에 대한 배려로 보리굴비집에 왔지만, 굴비를 못 드시는 교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는 같이 누려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밥)상을 베푸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시편 23편). 그 밥상을 같이 즐길 수 없다면 그 밥상 공동체의 흥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같이 식사를 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아무리 내 입에 맞는 식사를 맛있게 하여도 같이 누릴 수 없는 자가 내 앞에 앉아 있으면 먹는 게

먹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씀의 밥상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즐길 준비가 되어있나요? 식욕이 있으시나요? 사모함으로 말씀의 밥상을 받을 의욕이 있으시나요? 예배 후 셀모임에서 디저트를 맛있게 드실 기대가 있으시나요? 각자가 받는 은혜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들 맛있게 먹는 보리굴비를 혼자 먹지 못하고 있는 모습과 방불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는 오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향한 책임이며 의미입니다. 시장이 반찬이라 하듯이, 사모함의 기도는 말씀을 맛있게 받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로 저희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해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호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수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크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양이 정성이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슬랑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구봉주 칼럼

가치관 전쟁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최근에 접하게 된, 몇 가지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피부과 의사가 보고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어, 아토피성 피부염증을 앓는 자녀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돌도 채 안 된 한 아이를 진료하는데, 아이의 피부염증 정도가 지나치게 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아이가 몸을 긁어, 온 몸이 진물투성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머니에게 아이의 염증 정도가 지나치게 심한 것 같으니, 피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아이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가 심한 아이들의 여러 배가 될 정도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체질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많은 아이였던 것입니다. 특히, 아이는 동물의 털에 민감하게 반응

하기 때문에 털이 있는 애완동물과는 절대로 같이 살아서는 안되는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염증약과 항생제를 처방해주면서, 여러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키우지는 않으시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놀란 의사가 “개를 키우시면 안됩니다. 아이는 털에 민감한 아이라서, 계속 키우시면, 계속 진물이 나고, 피부에 흉터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냥, 약간 처방해주시면 안되나요? 개를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치료약을 처방해 달라고 했지 개를 키우지 말라는 말 들려고 병원에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개와 함께 지내면, 오히려 아이에게 좋았던데요?” 이 말을 들은 의사는 애완동물을 자신이 낳은 아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젊은 어머니의 가치관과 신념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어머니가 한 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피부과를 찾아오는 부모들 중 상당수, 많은 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가치관과 그에 따른 신념에 의해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게도 20세기 말 까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과 사회적 통념은 매우 도덕적이고 보수적이었습니다. 성경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 존중 받아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중요시되고 있었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다”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 같은 기본적인 가치와 통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기본적인 도덕적 사회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애완견이 자식만큼이나 어쩌면 자식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타락한 가치관이 우리의 의식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치관이 혼란해지면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람이 가치관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대화를 이어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가치관과 신념이 성경의 그것과 전혀 다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전에 마음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동성결혼을 당연한 것으로 믿는 사람은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기독교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낙태는 어머니의 권리이며 자유이다”라며, 태아의 생명을 그제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사람은, 구원, 생명, 영혼을 다루는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적, 성경적, 영적 가치관과 신념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이 지극히 성경적인가? 우리의 신앙적 사고와 태도가 지극히 세속적이지 않은가?”를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이 성경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이유가 되지 않는지 살피고,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다를 것이 없다.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예배나 다르지 않다”는 가치관이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대로 그저 물 흐르듯 흘러가버리는 자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쓰나미에 휩쓸려 가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에 물들었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수해야 할 가치와 신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고종필 칼럼

교육철학 박사의 교회와 교육 이야기(3)



고 종 필 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철학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마을의 어른들이 한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핵가족의 한정된 어른들만이 아니라 이웃의 젊은 청년, 중년 부부, 연세 지긋한 어른들이 그 아이가 자라는데 각각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격언은 “한 아이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말로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작은 아이 한명이 교회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교회”(one church)가 필요하다라는 말이다. 현실은 어떨까? 많은 교회를 보면, 매 주일마다 부모들

은 어린이들을 교회 학교 입구로 데리고 온다. 교회 학교 담당 선생님이 어린이들을 반겨 주고, 예배실로 인도해 준다. 예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찬양 연습을 하는 동안, 어린이들은 예배 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다. 선생님들이 준비한 예배를 드리고,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의 설교를 듣고, 선생님들이 인도하는 소그룹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선생님들이 주시는 간식을 먹고 있다 보면, 부모님이 데리러 온다. 이것이 어린이의 신앙 성숙을 위해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하고 있는 “교육” 사역일 것이다. 언젠가부터 교회는 “교육의 전문성”을 이유로 교회 교육의 대상자들을 세분화시켰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심지어 이러한 조직을 더 세분화 시킨 교회도 있었다. 학교 교육처럼 말이다. 또래 학생들과만 교육을 받는 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러한 교회 교육 시스템이 앞의 격언, “한 아이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말에 적합할까? 공교육의 학교처럼 같은

나이의 학생들만을 한 교실에 몰아 놓고 교육을 하는 것이 신앙 성장에도 유효할까? 알렌(Allen)과 로스(Ross)는 세대별 통합 예배 혹은 활동이 어른과 어린이 모두의 영적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주는 유익을 몇가지 나열한다. 그 가운데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세대별 통합 활동이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세대별 통합 활동은 역기능 가정의 자녀들이나 삶의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회가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해준다. 메사추세츠 캠브리지에 있는 한 교회는 지역의 95% 어린이들이 한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가 부모의 역할을 하기로 자처했다. 말 그대로 한 교회가 어린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자 한 것이다. 우리는 수십년이 지나도 여전히 비슷한 교회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몇년에 한번씩 담당 교역자가 바뀌고, 교사들은 여전히 다른 봉사 활동과 겹쳐서 교회를 섬기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활동은 별로 없고, 교회 학교 예배실을 예쁘게 꾸미고, 여름마다 여름 성경학교(VBS)를 실행하고, 절기 때마다 특별한 이벤트를 벌인다. 하지만, 그 시스템은 세대별 통합 활동이 아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다. 어른들이 보여주는 감정, 어른들이 표현하는 느낌, 어른들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어른들의 찬양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을 경외함, 어른들과 함께 하는 예배의 거룩함 등을 배울 수 있다. 교회는 의도적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와 소그룹, 선교 여행, 봉사 활동, 음악이나 연극 공연 등을 실행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교회가, 교회 전체가, 교회의 모든 어른들이 어린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교회 학교 교역자나 교사들에게 교육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교회”가 교회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하자.

성경쉽게읽기 특강


성경 일천번 이상 통독하신 강사가 아래와 같이 '성경쉽게읽기'에 대한 특강을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2023년 7월 6일, 13일, 20일, 27일 매주(목) 오후 7시(4주간)
- 장 소: Kairos University Campus (얼바인 분교 2층)
2681 Walnut Ave, Tustin, CA 92780
- 등록인원: 40명 선착순(인원이 차면 다음 기회에)
- 등록비: \$50 (교재 및 Fellowship)
- 등록방법: 949-304-8912 이메일: bible100plus@gmail.com
- 강 사: 데이비드 리 성경읽기선교사
- 주 최: 성경쉽게읽기선교회 (본 선교회는 성경읽기에 관하여만 가르칩니다)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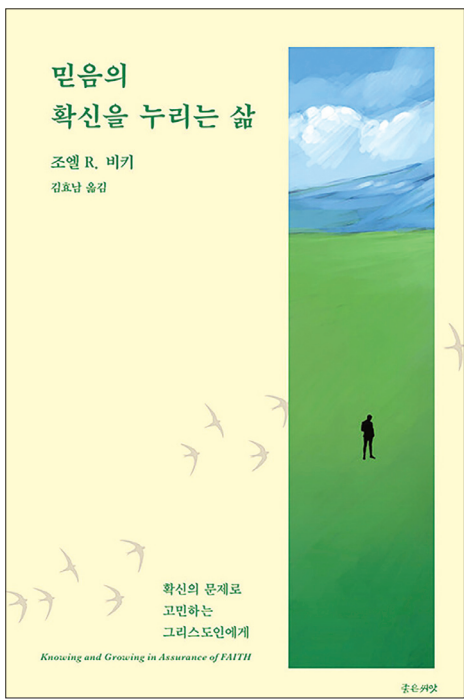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크리스찬북뉴스서평] 자녀가 확신의 기쁨 누리길 원하시는 아버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믿음의 확신을 누리는 삶
조엘 비키 | 김효남 역
좋은씨앗 | 304쪽

확신의 문제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 주는 그 떨리는 기쁨과 풍성한 열매

혜와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고,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다.

한국 독자들에게 비키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신앙인 역시 확신에 대해 배우는 것에 더하여 그 확신을 통해 평강과 기쁨을 더욱 누리야 한다(18쪽)”고 말했다.

《믿음의 확신을 누리는 삶》은 총 12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과 2장에서는 각각 믿음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밝힌다. 3장에서는 성경이 확신을 신자에게 요구하고 가르치는지 여부를, 4장에서는 그렇다면 성경이 권장하는 참된 확신과 거짓 확신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5-7장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다른 ‘확신’의 문항을 청교도인 버지스의 가르침과 함께 해설하는데, 크게 ①하나님의 약속 ②은혜의 증거 ③성령의 증언 등을 통해 신자가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8장에서는 확신을 개발하는 방법을, 9장에서는 확신의 상실과 회복에 관해 다루고, 10장에서는 신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11장에서 확신에 관한 최종 질문에 답을 찾은 후 12장을 통해 결론을 내린다.

다루는 주제마다 영혼을 갈아넣은 것 같은 열정과 진지함을 보이며 청교도의 문헌을 녹여 책을 풍성하게 만드는 저자 비키의 특성이 이 책에도 뚜렷이 나타난다. 그래서 독자는 신자가 확신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나아가 확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신자가 확신을 누리게 하고 더욱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그저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구원받겠조’라는 태도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부모가 입양한 자기 자녀가 항상 파양될 것을 생각하며 불안하게 살기를 바라겠는가.

가장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며 무한한 사랑으로 믿는 자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확신 가운데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신다.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부분은 비키가 은혜의 증거(6장), 그리고 성령의 증언(7장)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방법들을 통해 신자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일반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의 증거’라면, 성령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 체험’이 ‘성령의 증언’이다.

비키는 2차적 음성이나 신비로운 계시, 표적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비키 자신이 한 목사님의 성경적 조언으로 큰 감화를 받고 확신을 얻게 된 사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확실하게 구분짓지 않은 은혜



©Peter Dlhý/ Unsplash.com

최근 비신자와 신자를 가리지 않고 속이는 이단이 계속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도 바울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우리의 합당한 자세를 권하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고 말했다.

확신은 잠시 신자가 가졌다가 놓쳐버리고 살 무언가가 아니다. 계속해서 거해야 할 무언가다. 그러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성경을 배우고 또 배우야 한다.

조엘 비키는 성경과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종일 묵상하며 통찰력 있는 글로 다음 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청교도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소리친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독자가 그 성경적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누리게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이 하나님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께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역도
없으심이니이다

사무엘상 2:2

“There is no one holy like the LORD;
There is no one besides you;
There is no Rock like our God.”

1 SAMUEL 2:2

FI PLUMBING
213-434-8947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FI PLUMBING

저희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고의 기술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할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BOUT US:
24시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밍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CONTACT INFO

CALL:
213-434-8947
flplumbing2022@gmail.com

MORE CONTACT INFO:

@FIplumbing
 @FIPlumbing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에덴동산>과 <에덴동산에서 추방>

토마스 콜이 묘사한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 이후

<에덴동산>, 열대 지역 고적함·목가적 분위기에서 착안 <에덴동산에서 추방>, 안식의 <에덴동산>과 극명 대조 전형적 초상화 익숙했던 사람들에 심리적 불편함 안겨 인간 탄생과 타락 이야기 잘 담아낸 '높은 양식의 풍경'

토마스 콜(Thomas Cole, 1801-1848)의 초기작 <에덴동산>(1828)과 <에덴동산에서 추방>(1828)은 '국립디자인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Design) 연례 전시에 출품했던 작품으로, 에덴동산의 찬란했던 모습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후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모티브로 한 그림이다.

콜은 독특하게도 창세기의 주요 장면을 테마로 삼았음에도 지형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 자신이 두 작품에 대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높은 양식의 풍경"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매우 의욕적인 시도를 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것처럼 자신이 있었던 것은 바로 '지형적인 풍경(topographical landscape)'에서 '역사적 풍경(historical landscape)'으로의 변화를 일컫는다.

여기서 '역사적 풍경'은 역사화와 풍경화를 혼합한 새로운 형태를 말한다. 가령 이전의 회화가 성경적·역사적·신화적 내용을 '역사화'라는 형식에 담았다면, '역사적 풍경'은 인물을 주제로 삼기보다는 풍경화의 형태를 띠면서도 상상력을 접목한 회화를 말한다.

당시 흥미했던 낭만주의 화가들 역시 역사적 사건에 풍경적 요소를 결합시켰는데, 영국의 J. M. W 터너라든지 존 마틴(John Martin)이 그러한 화가였다.

두 작품 모두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다룬 것이나, 막상 제목을 빼놓고 보면 전체 화면을 아우르는 풍경의 요인으로 인해 그림의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축복의 땅 에덴을 모티브로 한 <에덴동산>은 전원적 고요함과 대자연의 평화로움을 노래한다. 시냇물이 흐르고 빨간 낙엽으로 채색된 숲, 탁 트인 평원, 넓디넓은 하늘 등은 시적인 분위기를 풍길 뿐 아니라 안식을 제공하고 있다.

주위는 무성한 꽃들과 녹색의 숲으로 뒤덮여 있고 멀리로는 높은 산에서 폭포가 내려온다. <에덴동산>은 콜이 카리브해의 세인트 유스타티아 섬을 여행했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았던 열대 지역의 고적하고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착안한 것이다.

화면 중앙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손을 높이 들고 경배를 드리는데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귀뜸해준다.

<에덴 동산>이 완성되자 콜은 <에덴동산

에서 추방>에 착수하게 된다. <에덴동산에서 추방>의 이야기는 오른쪽에서 시작하여 왼쪽으로 펼쳐진다.

오른쪽에서 콜은 이전의 그림에서 무성한 열대 초목, 야자수, 높은 산 밑에 위치한 잔잔한 호수의 이미지를 반복 사용하면서 타락전의 세계를 슬쩍 엿보게 한다. 화면은 아치모양의 암석 구조물에 의해 양분되며 우측에는 에덴동산이 좌측에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아담과 하와는 그룹들(Cherubim)의 불칼을 피해 급하게 피신하는 모습이다. 그들은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 유성(流星)처럼 알 수 없는 공간으로 돌진한다. 타락의 외연이 급속히 세계 전체로 퍼져 버렸다. 그들은 지금 나락을 헤아릴 수 없는 계곡 위 다리를 아슬아슬하게 건너는 중이며, 그 아래에 먹이의 숨통을 끊고 있는 늑대 또는 하이어나와 그 위를 배회하는 독수리가 눈에 띄고, 죽은 나무와 비바람에 휘청거리는 나무가 아담과 하와를 맞이하고 있다.

멀리 뒤쪽엔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분출하고 있고, 주위는 온통 시커먼 잿더미로 뒤덮여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사슴이 자유롭게 풀을 뜯고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누리던 <에덴동산>의 장면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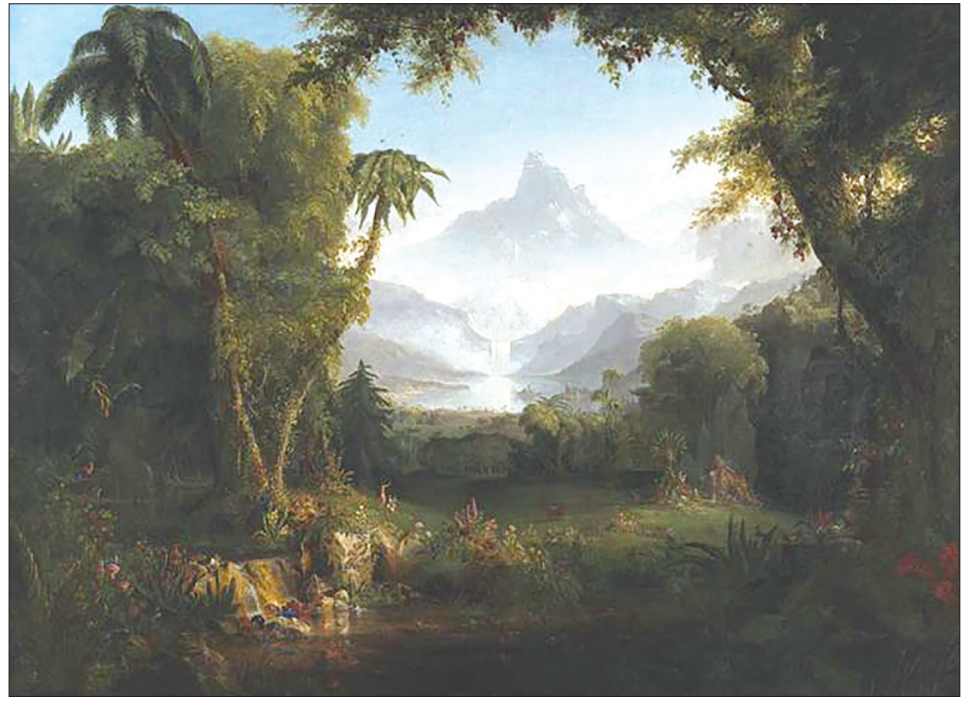
전형적인 초상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이같은 '역사적 풍경'은 심리적 불편함을 안겨 주었으리라 짐작된다. 그의 작품이 발표되자 미들턴트(Middle-Tint)라는 필명의 저널리스트는 이 작품이 "존 마틴의 그림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그를 공격했다.

이에 대해 콜은 "그림은 내가 존 마틴을 알기 훨씬 전에 구상되고 제작되었다"고 반박하였다. 과연 콜은 존 마틴의 작품을 베낀 것일까?

문제가 된 것은 존 밀턴(John Milton)의 『실낙원』 삽화에 실린 존 마틴(John Martin)의 <아담과 하와- 파라다이스에서 추방>(Adam and Eve- Driven out of Paradise, 1827)이란 판화 작품이다.

인물의 포즈가 유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화가들이 이전의 도상을 참고하는 관례로 미루어 볼 때 '그대로 베낀 것'이란 주장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세히 살펴보면 마틴의 그림에선 하와가 팔을 들어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고 아담은 베틀에 젖어 고개를 숙이는 데 반해, 콜의 그림에선 아담이 화염검을 돌아보고 있고 하와는 고개를 숙이는 자세로 남녀가 뒤바뀐 모



토마스 콜, 에덴 동산, 캔버스에 유채, 97x134cm, 1828, 아몬 카터 뮤지엄 오브 아메리카 소장.



토마스 콜, 에덴동산에서 추방, 캔버스에 유채, 100x138cm, 1828, 보스턴 파인아트 뮤지엄 소장.

습도 발견된다.

콜의 인물은 인물이 하도 작아 모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콜의 도상은 화염검의 표현에 있어 존 마틴의 얼버무린 듯한 표현을 능가하고 있다.

콜의 작품은 존 마틴의 판화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리얼한데, 이는 콜이 마틴을 추종하기보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할 만하다. 이 작품에 대해 <뉴욕 미러(New-York Mirror)> 지는 이 작품이 "추방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에게 올바른 인상을 전달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근래에는 이 작품이 환경 문제를 알리고 리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즉 19세기 중반 미국 사회가 서부의 확장 산업화로 인해 황무지가 점점 더 파괴되면서, 미국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실제로 경제 변화와 시장 혁명은 콜이 살던 시대에 직면한 과제였고, 자연은 산업화의 논리에 의해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콜이 환경 파괴를 방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 사례 깊은 예술가였다는 점에서 이 주장 역시 일리가 있으나, 그림에도 이 작품의 전체적

인 성격은 인간의 타락에 중점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논란이 일기는 했어도, 토마스 콜은 두 작품을 통해 '높은 양식의 풍경'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초기작들은 인간의 탄생과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그가 신앙적으로 잘 양육받아 왔으며 예술의 중심에 기독교 정신을 투영하게 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유럽에서 이주한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 물리적 피조 세계를 신 중심적(theocentric)으로 파악하였기에, 영국에서 이주한 토마스 콜 역시 자신의 작품을 경건하게 화폭에 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두 그림이 외견상 풍경화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내용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죄와 암흑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한때는 신한 창조주의 사랑과 신망을 독차지한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파괴된 세상에서 저주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할 운명이다.

그들이 마주한 세상은 에덴동산에서 보았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 그것은 죄가 침범해 창조질서가 교란되어 있는 엄청난 혼란스런 세계이다. 육중한 아치 구조물 너머의 초록 동산이 어쩔 그렇게 평화스럽고 찬란해 보이는지 모르겠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수면 대장내시경
- ♣ 수면 위내시경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44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34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3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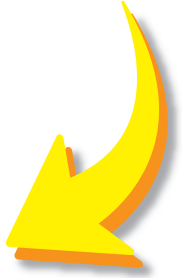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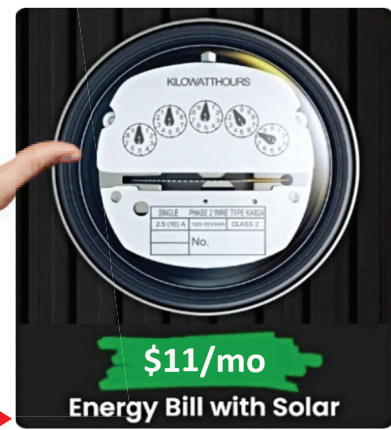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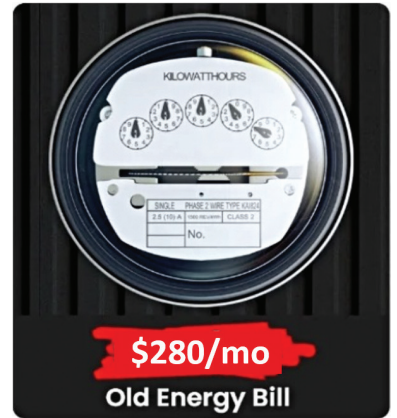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2023년
대박**

전기세가 11달러?!



SCAN ME

**100%
Made in
USA**



Lic#854389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전기료 50~70% 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 ✔ **EV Car Outlet Free**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50~70% 절감 *****

***소개 해주신 분께 시공 완료 후 500 불을 드립니다**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50~70% 절감효과**
- ✔ 별도의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패널** 사용
- ✔ 모든 제품군 (패널, 인버터, 레일, 케이블) **25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2~3달 안에 설치** 가능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CELLSPARTNER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